西廂
水滸
西遊

語錄

西廂記語錄解

一字類

嗞 [illegible] 前後嗞 [illegible] 漾 [illegible] 消 [illegible]

[illegible] 攬 [illegible] 扑 [illegible] 末 [illegible]

揣 [illegible] 趄 [illegible] 蕩 [illegible] 接 [illegible]

[illegible] 衙 [illegible] 鈔 [illegible] 趲 [illegible]

[illegible] 颭 [illegible] 倒 [illegible] 劣 [illegible]

[illegible] 國方言 [illegible]

二字類

[illegible] 字 [illegible]

西廂記語錄解

一字類

擻 酬簡音 嗤 前候○裂紙聲 嚎 開齋○흥경브르는소리 哨 開齋○들비는소리 熥 寺警○복다 攬 寺警○지근지ㄹ 啉 後候○말잘ᄒᆞᆫᄂᆞ거든又聒也 抹 借廂○앏쳐보다 瘦 拷艷○ᄉᆡᆼᄌᆞ들이이다 趄 鶯夢○기우이이다 湯 借廂○ᄡᅳ지다 按 開齋○시험ᄒᆞ다 搓 借廂○바르다循搓也 衕 開齋○뵈단의ᄉ 釤 寺警○갈기다 赸 開爲○무료ᄒᆞ다 管 鶯夢○응당 颩 寺警○놀니다 㑳 拷艷○이상ᄒᆞ다 撓 寺警○부드지다 劣 鶯夢○모학 燀 寺警○초ᄒᆞᆫ다灸爛也 鍪 鶯夢○광이포別國方言 撅 鶯夢○삽이다

二字類

拗折 鶯夢○구븨지다 溫存 借廂○경즈빗다 嬌汗 開齋○어엿븐ᄯᆞᆷ 整扮

閙簡ㅇ졍이ᄭᅮ미단말 僉發 賴簡ㅇ交合之狀 斷送 借廂ㅇ潟想之意 體究 拷艶
ㅇ졉어싱각ᄒᆞ다 按捺 賴簡ㅇᄎᆞ마머므르다 来儘 寺警ㅇ져의임의로 胡顏 閙簡
ㅇ낫츨 端詳 請宴ㅇᄌᆞ셔이보다 苗條 閙齋ㅇ회찬회찬ᄲᅡ여나다 龐兒 借廂형용
牽頭 拷艶ㅇ노고잔이 厭的 閙簡ㅇᄒᆞᆫ숨쉬다 氳的 閙簡ㅇ낫빈ᄒᆞ다 氤氳
酬簡ㅇ비릐여오ᄂᆞ거동이라 攔縱 琴心ㅇ긔운느른ᄒᆞ게ᄒᆞᆫ단말 摩美 賴簡ㅇ죄오다 熱
趲 閙齋ㅇ죄오다 調犯 閙簡ㅇ복촉여격돈ᄒᆞ다 攛掇 閙簡ㅇ권ᄒᆞ다又부촉이다 唓
嗻 鸞夢ㅇ多言貟 撒咯 後候ㅇ胡亂이又胡言 呪誦 琴心ㅇ咀呪ᄒᆞ야ᄭᅮ짓다 搯白
後候ㅇ핀잔쥬다 癸送 琴心ㅇ족계무함 腌臢 寺警ㅇ더럽다 怕不 前候ㅇ猶怕角
不罷手 拷艶ㅇ말더무나 知音 後候ㅇ귀ᄒᆞ여 休劣 閙齋ㅇ뒤여지말고 膓忙
借廂ㅇ속이뒤셕기인의ᄉᆞ 軟癱 賴婚ㅇ호조근ᄒᆞ다 落空 賴婚ㅇ속의그릇ᄒᆞ다 迸

定賴簡ㅇ말못ᄒᆞ여벗벗ᄒᆞ다 掉下借廂ㅇ나리우다 浹洽賴簡ㅇ찬찬이회게 赤
緊借廂ㅇ작두又鬧簡졍단ᄌᆞ又은근 兜的酬簡ㅇ忽然也 半折酬簡ㅇ반졉 腼腆
驚艷ㅇ어려워 積世賴婚ㅇ득묵은 取次鬧簡ㅇ之次 偢倸請宴ㅇ너그져 唧噥
琴心ㅇ져기뫼오다 胡拿賴簡ㅇ상염시더듬다 做會琴心ㅇ做一會也 只據請宴
ㅇ다만 早則請宴ㅇ응당 兀的酬簡ㅇ졀노 兜的寺警ㅇ공연이 正合後候
ㅇ라연 可有請宴ㅇ可有豈모로거니와 呆勞鬧齋ㅇ어리다 能消寺警ㅇ消迷意
撒心後候ㅇ경망ᄒᆞ다 款擺酬簡ㅇ찬〻이음지긴다 掂着酬韻ㅇ발져기드듸고가
만가만이것다 亂踅驚夢ㅇ빗셕여것다 偏宜酬簡ㅇ더맛당ᄒᆞ다 打當借廂ㅇ穩
當又쉬오니 空囊借廂ㅇ清廉ᄒᆞᆫ일홈이라 慇思前候ㅇ먼인민쳡 轉關鬧簡ㅇ리
간졉ᄯᅡ 不争拷艷ㅇ연고업ᄒᆞᆫ다스로 不籍驚夢ㅇ앗기지아니ᄒᆞ고 無那賴婚ㅇ홋

트러져 어주럽다 又 狂爲 闊簡ㅇ상 업시ᄒᆞᆫ다 撩發 借廂ㅇ허 트러져 胡侃 ㅇ闊簡 쓸
디업슨 산ᄉᆞᆺ 搬弄 琴心ㅇ샹업시 침노ᄒᆞᆫ단말 脫空 琴心ㅇ버서나리 오又헛되간말
蹬脫 賴婚ㅇ벗 大ᄂᆞ다 張羅 賴婚ㅇ장황 이안만흔취 淘瀉 驚夢ㅇ 벗다 句頭
闊簡ㅇ 흑리다 紇裡 賴簡ㅇ 속은 神致 前候ㅇ셔 동덕의 提正 酬韻ㅇ 비꼬 躡
着 借廂ㅇ가 만가만 磨礱 琴心ㅇ 쥐불너 消瘦 拷艶ㅇ瘦卽受 字밧다又受用 謝承
請宴ㅇ 샤례 颩去 借廂ㅇ허 비ᄒᆞᆫ다 旖旎 驚夢ㅇ곱기 ᄒᆞᆨ낭업다 宜貼 驚艶ㅇ 븟
친거시맛 당ᄒᆞᆫ다 褶襪 前候ㅇ 주긔다 嘍囉 賴婚ㅇ도적의군 ᄉᆞ又띄라又利口 招伏
闊簡ㅇ 승복 紕繆 寺警ㅇ 믯다 窩納 借廂ㅇ銷금 드려싼비단 呀的 酬韻ㅇ 門여격
소리 咲窨 後候ㅇ움의 것구루막다 軟簾 闊簡ㅇ부드 러온房帳 鈿窩 賴婚ㅇ 은으로
셰만드러니마의냥 편으로누르ᄂᆞᆫ것 大乂 寺警ㅇ 북지셔 麪伏 寺警ㅇ 홍도셔 土漬

寺警ㅇ동녁 鬼病 後候ㅇ젹호병 粧呑 後候ㅇ벙어린쳬 摧殘 閙簡ㅇ보ᄎᆡ다又알
푸다 膋血 鸞夢ㅇ름진물 騙馬 賴簡ㅇ飛身上馬

三字類

老潔郎 借廂ㅇ늙고조촐ᄒᆞᆫ낭군 倂女工 琴心ㅇ녀공을지혹ᄒᆞ여 演撤工 借廂
ㅇ욕마음에먹다 令人偲 後候ㅇᄉᆞ람의임의라 可人憐 鸞艶ㅇᄉᆞ람이어엿버ᄒᆞᆫ
안말 舒心害 酬簡ㅇᄆᆞ음의그치지아니코ᄉᆡᆼ각ᄒᆞ다 䖍怕了 賴簡ㅇ년ᄒᆞ여두두이다
沒揣的 酬韻ㅇ무심즁에 酩子裡 閙齋ㅇᄒᆞ리멍덩 呆打孩 東簡ㅇ어린ᄃᆞᆺ
시 煩惱耶 借廂ㅇ갑갑ᄒᆞ다 暢懊惱 閙齋ㅇ暢가장이관말 恨匆匆 琴心
ㅇ믜이의ᄡᅳ다 轉関兒 賴婚ㅇ켜술 措支理 賴婚ㅇ착百又창졸 把搭地 賴婚
愁惡萬切之貞 偲抹眉 前候ㅇ그럿ᄃᆞᆺ시낫가리오다 饞眼腦 閙齋ㅇ건걸ᄒᆞᆯ린눈망울

眼挫裡 借廂○눈ᄌᆞ리 怎凝眸 拷艷○주름이나보리오 鎖納合 賴婚○눈살ᄡᅵᆼ

거이다 清減了 哭宴○여위다 厮琅玕 寺警○猶唶啞叱咤拼又哶拼也 會家

吟 後候○아ᄂᆞᆫᄉᆞᄅᆞᆷ을향ᄒᆞ여ᄒᆞᄂᆞ니 志誠種 琴心○指張生 啞謎兒 賴婚○ᄉᆞ지

鬧嗑兒 賴簡○말잘ᄒᆞ다 瞞天荒 後候○하ᄂᆞᆯ을속이ᄂᆞᆫ거ᄌᆞᆺ말 熱胡兒 後候

○은ᄃᆞᆫ흘녀 軟廝禁 後候○셰오다 赤緊的 寺警○미오ᄌᆞᆨᄒᆞᆫ듸 改抹咯 後候

○너ᄒᆞ리워고치고리 沒掂三 寺警○뒤단치아닌것 胡撲俺 寺警○공연이너게달니

이다 葫蘆提 鬧齋○흐두이 不待拈 前候○잡기슬타 不良會 酬簡○猶可憎

恰動頭 拷艷○ᄀᆞᆺ치드럿다 出落得 拷艷○젼에셔고치여 提至得 驚艷○니

로노라ᄒᆞ면 提至到 驚艷○간거시 一納頭 前候○셔ᄒᆞᆫᄂᆞ름것단말이라 禁不

起 鬧簡○견디지못ᄒᆞᆫ단말 索覷咱 賴簡○날을보려무나 較爭些 驚夢○오리려

ᄂᆞᆺ하 爭些兒 閙簡ㅇ하 마터면 破題兒 哭宴ㅇ어녀ᄉ 이又진실노 那答兒

賴婚ㅇ어 뇌곳의 兀的般 拷艶ㅇ 의고나 也麽哥 寺警ㅇ혈셰 라그듸아 也不

索 寺警ㅇ그 리되슬타 世不曾 寺警ㅇ아조 世或作勢 可正是 鶯艶ㅇ 마ᄎᆞᆷ 眞

爲徹 鶯夢ㅇ 단녀 倒攔就 拷艶ㅇ도로허 븟조지는듸 識空使 賴婚ㅇ 듬을아

ᄂᆞᆫ 與乃堂 借廂ㅇ졔어 ᄂᆡ가알가 斜簽着 哭宴ㅇ모흐로 바ᄉᆞ듬이안다 慢俄

延 鶯艶ㅇ찬찬 이혼거러가 風流況 借廂ㅇ 況猶事 搭伏定 寺警ㅇ 쟈히다 強當

住 鶯夢ㅇ드 러ᄌᆞ바 撲堆着 酬簡ㅇ드 러나다 特來晃 借廂ㅇ부러 와흐리다

軟兀刺 賴婚ㅇ물 이즉어 拂綽了 賴婚ㅇ셜 치단말 酸淄淄 請宴ㅇ 싀여

吉丁當 琴心ㅇ텡 경뎅경 一星兒 後候ㅇ흔 조고만 剔圓欒 酬韻ㅇ 동고랏

단말 合歡令 請宴ㅇ 曲令 夾被兒 賴簡ㅇ 겹니불 方勝兒 前候ㅇ 미듬 打

疊起 懶簡이 졉어삿다 薄文怯 鶯鶯이 엷고 플이 죽다 浮婦羨 寺警이 블의고 슬넌국

寬片粉 寺警이 조각너른면 添雜糝 寺警이 온갓맛 酸黃虀 寺警이 쉰나믈

眞調淡 寺警이 진실노 調ᄒᆞᆫ 기를 승겁게 ᄒᆞᆫ다 從敎暗 寺警이 며조 셔오단말

古都都 寺警이 물 얼는모양 淹漬了 前候ᄂᆞᆫ 뎌릐다 香積廚 借廂이 졀부억

木堂 借廂이 졀나무고간이라 撞釘丁 寺警이 말독박다 不自在 酬簡이 몸이 셩

치못ᄒᆞ다 惡心煩 鬧簡이 아니곱다 襯殘紅 鶯艶이 ᄯᅥ러진 꼿치살니이다

四字類

似等辰回 鬧簡이 辰星고 북라짐갓치 惹草粘花 寺警이 겨집 후리단말 身

子兒作 懶簡이 몸이 교티ᄒᆞᆫ다 金雀鴉鬟 鬧簡이 金釵 ᄶᅩᆨ즌쳐녀 在心爲

志 前候ᄋᆡ 마음의이 시면 뜻이되오미 不舍心煩 鬧簡이 즈즐치 아니ᄒᆞᆫ단말 僂人

負心 後候○眥장이가계마음과어긔여지다

打了氣分 寺警○븟그러올가시부다

意不爭差 賴簡○듯에맛당지아니ᄒᆞ다

嗢的早嗔 寺警○경솔이셩너다

忐忐忑忑 寺警○가슴변덕변덕무셥다

可憎得別 鶯夢○미오어여분것시

打個照面 鶯艶○눈맛ᄆᆞ조이다

口沒遮攔 閙簡○입보도람다

擷窨不過 賴婚

脚跟無線 鶯艶○발이미이지아닌

寄語多才 後候○多才의게말젼ᄒᆞ자

掂斤播面 借廂○들머겨

鶻伶淥老 借廂○눈영나ᄒᆞ거시

幫閑鎖懶 閙簡○호와셔돌다

不任般掌 酬韵○이러듯가즉가보바

宜嗔宜喜 鶯艶○셩닐지라도곱고깃거ᄒᆞᆯ지라도곱다

儘人調戲 鶯艶○ᄉᆞ람의게일것[illegible]웃계ᄒᆞ여도

把人禁害 酬簡○ᄉᆞ람보ᄎᆡ기를잘ᄒᆞ다

風欠酸丁 請宴○ᄇᆞ름마른못볼것

歹臨侵地 哭宴○하마죽을듯ᄒᆞ다

吹彈得破 賴婚○불면ᄉᆡᆼ가

暢好是奸 閙簡○奸

ᄒᆞ면暢好ᄒᆞ다 那塌兒人寺警ᄋᆡ 졍에ᄉᆞ름 他由得俺琴心ᄋᆡ 쳐날늘임의로노

ᄒᆞ 叁辰卯酉拷艶ᄋᆡ 어근버근 没查是倒賴婚ᄋᆡ 련연이 厭的倒褪

寺警ᄋᆡ 흔희여ᄡᅳ로므로못다 駁駁劳劳寺警ᄋᆡ 결단모이셔괘ᄒᆞ다 部署不

周拷艶ᄋᆡ 검거ᄒᆞ고ᄒᆞ기엄히못ᄒᆞ거늘 反吟伏吟後候ᄋᆡ 어그버근 掊饒

輕慢鬧簡ᄋᆡ 뎡술ᄒᆞ거슨사ᄒᆞ여라 顛不剌的驚艶ᄋᆡ 이샹이고은거슬 挽弓酸

俠前候ᄋᆡ 활발이ᄂᆞᆫ 죰놈 倒陪家門詩警ᄋᆡ 가잔도로혀어송치ᄒᆞᆫ단말 聘不

見爭請宴ᄋᆡ 폐빅多少늘ᄆᆞᆺ도지아니ᄒᆞᆫ단말 包殘餘肉寺警ᄋᆡ ᄉᆞ너므나믄고기 撒

和了馬驚艶ᄋᆡ 말먹이다

五字類

宋玉愁無二前候ᄋᆡ 宋玉의근심과갓다 扢扎起面皮寺警 어ᄂᆞᆺ빗츨온화

이ᄒᆞ、나

睃趂放毫光 借啊이기웃거리고 눈죠고흘긔곳보다 非奸做賊拿 賴簡이엿보라오몸아지아 나변도젹으로잡느리라

好教聖賢打 賴簡이셩 현으로ᄯᆞ리오

又不曾有甚 後候이ᄯᅩ아죠어들기는 업사又될갈업단말

橫枝兒着緊 寺蹩이가죠누어 착ᄒᆞᆸ히셔두다

角帶鬧黃裡 請宴이角帶에누른 가족으로ᄭᅮ미다

啞聲兒廝耨 拷艷이가만가만 ᄒᆞᆫ소리로알단말

六字類

把你使使性子 鬧簡이네이러ᄐᆞ 시셩늘너ᄂᆞ너

他敢顛倒費思 前侯 ᄂᆞ쳬아무려도절노다 음다음슬펴보리라

改抹啫䐫天謊 酬簡이너하 ᄂᆞᆯ속이ᄂᆞ거 즛말을ᄒᆞ리 뉘고치고

鬧簡決撒了也 寺蹩이고 이흔지고

好殺人無乾淨 請宴이온가지로죠ᄒᆞ 뒤조흘튼아니ᄒᆞ니리

前後左右閑着 鸞艷이공 연이노느

니荊棘刺怎動那 頼婚ㅇ那那移也가ᄉᆡ박 인다시 움즈이지 못ᄒᆞ다 兩當一

美成合 頼婚ㅇ상인의 혼인ᄒᆞᆫ 맛 一乃壓驚一乃就親也 鳥龍尾鋼掾格 寺䜅

ㅇ鳥龍尾ᄀᆞᆺ ᄒᆞᆫ 쇠 몬 둔 이

七字類

恰告了相思迴避 ᄒᆡ로 그리ᄂᆞᆫ 거시 비로 소ᄀᆞᆺ치다 ᄒᆞᆫ 여러니 哩也羅哩

也羅哩 頼簡ㅇ이러 타져라타

八字類

便消得你家緣過活 頼婚ㅇ곳네의 가장과 셩 도로 주어 담당ᄒᆞᆫ 여살 되

九字類

掉不下思量如今又也 驚夢ㅇ그려 ᄉᆡᆼ각ᄒᆞᆫ 믈플치 지 못ᄒᆞᄂᆞᆫ 거시 이제 ᄯᅩ 왓도

다

害不倒愁懷恰幾較些 驚夢이면만ᄒᆞ고 심난ᄒᆞ믈견ᄃᆡ지못ᄒᆞᄂᆞᆫ거슬비로소져기위로ᄒᆞ미

十字類

猶古自參不透風流調法 賴簡이오히려녜로븟터風流ᄒᆞᄂᆞᆫ쥴을능히ᄭᆡ닷지못ᄒᆞ다

水滸志語錄解

一條桿棒等身齊打四百座軍州都姓趙 길과갓ᄒᆞᆫ막대하나 ᄒᆞᆫ로ᄉᆞ빅좌군주를고로ᄂᆞᆫ 도모지도시쳬샹을만드니 져 端的是 참으로 一連 잡은 참의

雪片也似 눈날니드시 羅天大醮 쳔변슈륙 怎生 엇지 恁地 그러면

降〻地燒着御香 어향을소로 소로외오니 約莫 어림에 看〻脚

酸腿軟 겸〻발목의고다리가풀니너 尚兀自 오히려 何曾 언제 撲地 넘얼논

托地 捉對兒廝打 마조부그되치ᄒᆞ야 方絶 져 務要 아모조록 數

了數口氣 두어마듸한숨쉬다 限差 ᄒᆞᄐᆡ야시기다 簌〻地響 소로ᄂᆡ소리나

寒栗子比錯飽兒大小 소오름이솟단마콤크다 待再 하마다시 笑

吟吟地 벙그러이우스며 可惜錯過 앗가올손그릇지나쳐가 不保 아론혀ᄉᆞ

태ㅣ 爭些兒하마드면 提爐들의잇는화로ㅣ 猥猴잔방ᄒᆞᆫ다 道是去了가마

ᄒᆞ고ㅣ롤진티 這兒晩오날늣게야 兩扇朱紅槅子빗서빤든죽홍칠ᄒᆞᆫ두닫

박라 이 門上使着肐膊大鎖ㄷ着交义문숙희팔독만ᄒᆞᆫᄌᆞ물쇠로가

로조모시니 胡說되ᄯᅳ디로니료다 火工道人블목한이 黑洞洞경검어두

어 火把點着홰블혀다 鋤頭광이 鉄鍬鏨着슬길ᄒᆞᆫ다 可方丈圍

스면열조식ᄋᆞᆫ되더라 刮刺刺一聲響와ᄅᆞᆯᄅᆞᆯᄒᆞᆫ므되소리 一箇萬丈深

淺일만장나김히 이 滚將起来ᄭᅳ러ㅣ러ᄂᆞ다 掀塌了半箇殿角춘혀

물반이나제취문희키다 目睜口呆눈멀거께벼고닙병읏병읏ᄒᆞ다

一回

浮浪破落戸허되고소입장이 相撲탁번 頑要갈비약길 胡亂살넙시

幫閒ᄒᆞᆫ령잡이 幫了ᄒᆞ려 生鉄되장장이 三尾兩舍기싱의집 堵坊的

閑漢노롬붓치ᄂᆞᆫ놈 乎偶澇漢子마조치여단니ᄂᆞᆫ놈 過活지내다 老

宗的人고지식ᄒᆞᆫ사ᄅᆞᆷ 撒不過브리든못ᄒᆞ리라ᄒᆞ고 面皮졍신 量出一

箇路數ᄒᆞᆫ비고ᄂᆞᆯ싱각ᄒᆞ야 一套한별 遭際더블만나다 淨手뒤보다 不

落手손의노치아니코 一手做的ᄒᆞᆫ손시에만ᄃᆞᆫ것 一併함긔 使見보게

ᄒᆞ다 包袱보 懷中揣着품의품다 院公청직이 沒多時오래지아녀 지

腰繫文武穗絛좌우ᄉᆞ쌍술이듸를띄고 박 把繡袍前襟掖扎

揣在絛兒邊옷앏ᄉ조락을거두쳐다가띄에지ᄅᆞ고 嵌金線금션믈쳔 作羨

跡되야나다 鶱鶱拐踢작우다리길노차다 東人쥬인 堂候官지ᄎᆞ 文

手각지ᄭᅵ다 做一回要ᄒᆞᆫ바탕노다 何傷무어시ᄒᆞ로오리오 三回五次

여러번 定要고집ᄒᆞ다 解縢힝뎐티다 喝倸칭찬 本事ᄌᆡ조 身分몸시 門

子놈ᄒᆞᆫ 孤欺索此人네이ᄉᆞᄅᆞᆷ을ᄉᆡᆼ여 伏侍시죵드다 樞密院즁추부

胡說므어시라ᄒᆞᄂᆞᆫ다 推病알ᄂᆞᆫ쳬ᄒᆞᆫ다 搪塞막다 셔 連累덕수아비ᄡᅳ다

使花棒헛녀ᄡᅳ다 理會쳐치ᄒᆞᆫ다못치리라 야 將息不起조리ᄒᆞ야ᄂᆡ지못ᄒᆞᆫ

다 看那廝待走那裡去그놈이어ᄃᆡ로다라나ᄂᆞᆫ고보라 首告자현ᄒᆞᆫ다

理會계ᄭᅬᆼ任아ᄅᆞᆫ쳬 遮莫去那裡陪箇小心아모커나져리가셔공손이ᄒᆞ리

자 一週遭이ᄉᆞ면 方便조토록 煖帽엄ᄋᆡ 敢未打火밋쳐밥못먹어셔

시리라 無故相擾연고업시폐시기다 肐膊着刺着一身青龍팔독

몸의만치일신에현놈을속이고 破綻실슈 笑話ᄒᆞ오보단말가 我不如倒不

如你너도로허너단못ᄒᆞᆫ줄밋지못ᄒᆞᄂᆞ나 任地時그려ᄒᆞᆫ며 不當時ᄒᆞᆷ지못ᄒᆞᆫ

량면이 風車兒似轉도로리치돌다 갓 不合그릇 心中難捨ᄆᆞ음의셥

셥ᄒᆞ다 打熬가ᄃᆞᄃᆞ며又견ᄃᆞ다 又沒老少ᄯᅩ늙도졈도으나ᄒᆞ다 探頭探

腦在那裏張望기웃기웃거리셔엿보거든 莫不是來相腳頭발시

녁히ᄂᆞᆫ아니라 你往常네젼의 那討來賣엇지어더팔니오 不可去

掄攛他가히가져돌녀지못ᄒᆞᆯ거시라 으 端的了得참으로듸득ᄒᆞᆫ나라又거록ᄒᆞᆫ

다 賠賻뎐뒤 衲襖누비양옷 赶人不要赶工스룸ᄂᆞᆯᄯᅩᆺᄎᆞ도사조ᄇᆞᆺ지아니

ᄂᆞᆫ 休得要逞精神너모졍신조랑마라 欵欵揪住了線縢실젼

뒤훌단단이트러잡고 大虫不喫伏肉降者不殺也 不當穩便아니부졀

업는 跟ᄃᆞ蹌ᄃᆞ一步一顛이리비ᄯᅳᆨ져리비ᄯᅳᆨ머름ᄆᆞ다업드러질ᄯᅳᆺ 合

當ᄲᅥᆨ 他道我來相腳頭蹤盤져말이날ᄃᆞ려발시이기려고바조ᄂᆞᆫ다

내ᄒᆞᆫ뎌 住擺淂似麻林一般 삼셔드려져ᄃᆞᆺ드려셧다

二回

伱兀自賴哩 네오히려양탈ᄒᆞᄂᆞ라 把手指道且答應外面 손으로형용ᄒᆞ야니ᄅᆞ되오직것ᄎᆞ로만되답ᄒᆞ라 權 오직 盡教他疊起了 다묵거동이라 ᄒᆞᆫ고 分外眼明 별로눈이ᄇᆞᆰ은지라 見勢頭不好 눈치가조치아니ᄒᆞᆫ믈보고 打拴一箇包裹 보짐ᄒᆞᆫ나동ᄂᆡ고 腰繫一條楂五指梅紅攢線縢包 허리의ᄒᆞᆫ오리다ᄉᆞᆺ손가락너븨되고ᄆᆡ홍빗실로친젼ᄃᆡ를ᄯᅴ고 喫箇泡茶 셜ᄂᆞᆫᄎᆞᆺ먹으리라 一雙鷹爪 ᄒᆞᆫ빵번것고 兩箇挽了胞膊 둘이손목잡고 園住白把上 빈ᄃᆡ의위셔셔에 揷把紙標兒在上面 조희에계목을 벗겨보람늘ᄭᅩ잣고 誰奈煩等 기뒤라답답이다리리오 一發笑錢還伱 지ᄒᆞᆷ

돈세여쥬다 說得入港 말이조미이셔갈계 抄手 돈빅뵈다 咬咬的哭攬

방졍마지빨빨 이희짓논다 纏酒座兒唱的 술집을도라단니며 노리부르느니라

手裡拿串拘板 손에쟝단치는거슬가지고 萬福 분안드리 녀이다 生受

열니지 녀더니 虛錢實契 헷돈에실 문셔라 醍廬子 즈리입을세 모다뜨죽히너

말 고 腌臢潑才 비암식나 더러온놈 고 這等欺負人 이리스롬을 업슈이너기

라 着落他要錢 제게못짓던돈 브드려흐느니 賒 외즈 너다 着管 보 허숍 楂

開 졀 쳐 膘子 편육 肥的 비 계 連那正要買肉的主顧也不敢

攏來 고기소라오는단골일쥬로또흔 하나토갓가히요지못흔디라 寸金軟骨 뼈 살

스이무 른쉐 醋鉢兒大小拳頭 초사발만 흔주머괴 直娘賊 겨집파 는놈

太陽上 귀키무또 빅회혈 鉢兒鐃兒 바라 제금 大家 죵 이놈

三回

撞了다헤미戲殺了넘저어톨힘孤老인ᄒ不受生受말ᄒ나ᄀ隨

分便好더되로ᄂ噴飯酒接却絶가앗山高水低한스말ᄅ주檀越

주시行童자쟝打了單賬잡발다괴不可托大차가믈하ᄒ자부休與

他一般見識우저지와말갓다치갈千鳥麽답아ᄒ니나답餓得乾癟

了호주병려되발다노적口中淡出鳥來츰입흘의니셔다믈은兀那漢

子이엽놈다做生活的느버니리ᄒ褪膊下來히팔다뚝샌却待掙

扎려버ᄂ릇려셔ᄒ혀다ᄂ我自明日時時來理怨他便了일내블비

녀걸다ᄒ가마져무롤던거다干呆麽아련니ᄒ미냐熬得다던듸兀那待詔

엽디다쟝져아ᄃ生活녕정家生쟝연赶趁비밧

四回

傢伙 연장긔명 又田地 들 搬東搬西 이것져것 옴기다 閑管的事 샐업시 알은쳬ᄒᆞᆯ 일 攪擾 폐시기다 那爭師父一箇 엇지ᄉᆞ부ᄒᆞ나 ᄒᆞᆯ서리리오

情愿 즐겨 不貶眼 눈도깜작 아니다 懷着鬼胎 겁ᄂᆡ다 의심ᄒᆞᆫ다 又羅帛

像生花 가화 着地 답해 打鬧裏 덤병관 撻馬 민잔등 이말 燃燈佛 등심

韁繩 비긴 곳 冒冒失失 우락부락ᄒᆞ다 壞了 죽엇다 剪拂了 절ᄒᆞᆫ다

一路 동모 不爭 ᄒᆞᆯ일업다 自在喫幾杯 편히여러 잔먹다 倒着了

숫다 아 罷手 달치 揑着兩把汗 깜작놀나 땀흐르다

五回

竈頭 붓막 道人 거ᄉᆞ 排行小乙 항렬이 둘지 影占身體 어렴프시

몸을가 리오다 蹉過後面 빗ᄂᆞᆫ뒤흐로 도라셔다 氣騰騰透將起来 김이

물욱불욱 의여나다 合春檯杓子 유주걱 구유 抄化 동냥 撒潑 악쓰다 影来

열은 거려 摘脚兒厮見 발뵈 서로 보다 초아 不利市 장보 지르다 晦氣 의 ᄃᆞᆺ

다 間深裡 조오 지게 肐肢肐 거ᄃᆞ랑 吊死了 목ᄆᆡ 죽다 ᄯᅢ 三岔路

口 사거 리 東厮 뒤ᄉᆞᆫ 種地 人 원하 두이 掛搭 붓쳐 잇다

六面

匾匾的伏 납족이 업되다 活泛 무루 녹게 颼颼的使動 又 휘휘 쓰다 ᄲᅥᆨᄲᅥᆨ

入眼 눈에 드다 合口 말다 다믈 不及的 못 된 過房 수양 ᄒᆞ다 乾兒子

수양 ᄋᆞᄃᆞᆯ 時間 약간 須不好着 괄시 ᄒᆞᆫ 미라 不合喫着他的請受

그 듯제 녹을 먹으니 莫要咲話 웃지 마나 보라 一班兒閑漢 ᄒᆞᆫ 셰 실업슨 놈 悶

倒어즈릇치受這般腌臢的氣이런안이ᄭᅩ은만슈ᄇᆞ지休氣분ᄒᆞ여말고

小遺오좀氣不來슘긔업셔央보치다一地里ᄒᆞᆫ슘의乹開了급히

여다故做그른일少冗결을업셔爭柰ᄒᆞᆯ일업셔好歹아모거나只除브로

僻淨處으슥ᄒᆞᆫ곳擡舉ᄉᆞ랑ᄒᆞ리라草標兒보름이라屌沈了프뭇치깃

다偌大이런큰失口道무망중이르되鈎旨분부

七回

冤屈의미ᄒᆞ여라斷遣죽이리라明鏡통촉ᄒᆞ쇼셔休書휴셔써주대躭

悟걸니거리다鏡照보람ᄉᆞᆷ다打箇手模좌촌리다萬字완ᄌᆞ對원슈

回狀도부장結果죽이다ᄅᆞ떠리다又써撒搭드러ᄂᆞ다爽利싀원ᄒᆞ다折

了些便安봉변ᄒᆞ다擔待一步잠간쉬다咭咭잔말喃喃吶吶종알

종알 ᄒᆞ다 魔頭 원슈 㐲다부 듯 那裡敢回話 엇지 감히 말 ᄃᆡ구 ᄒᆞ리오 潦漿

㐲 더여부 푸러저 揑着兩把汗 의뼈겁 내다

八回

做神做鬼 간ᄉᆞ 흔쐬 兩角酒 두복 자술 敢扭他 감히우 기리오 發作 셩내

다 必然柰何 반ᄃᆞ시 고 치리니 解字裡 상직 막 捨着 의달 다 手 ᄂᆞᆫ

脚亂 붐뷔 게 背得不耐煩 참다가 못ᄒᆞ여 轉灣抹角 구비도라 모ᄡᅥ셔

挺着脯子来 목동픠 이고 忒認眞 너모곳지 식ᄒᆞ다 說開就理 잔 속

내 르 好歹落在我手裡 엇더 리기 너를 ᄂᆞᆫ지 혼내여 ᄲᅥ다 大刺刺的

거드 리러ᄂᆞᆫ 너건 一佛出世 눈이 지게 ᄲᅧ 差撲 복졸 馱起來 이ᄃᆞᆯ 다지

拘管他 져를 ᄃᆞ리다 지ᄆᆞᆯ 闉 어디로 호단말

九回

酒生兒 술시즁드다 打扮 민도리 煩 수고롭다 尷尬 수상ᄒᆞ다 吶出 어렴

푸시 摸不着 아지못ᄒᆞ다ᄒᆞ다가못ᄒᆞ면 又 常例 인졍 交割 젼상ᄒᆞ다 工夫 일셔

이 紙團團 조희가둘둘말니이다 央浼 보치다 會幹事 일ᄒᆞᆯ줄안다 脆

擦 셜ᄶᅡᆨ 閣着 즈로다 休纏 지ᄅᆞᆫ다리지말나 快活 싀훤이

十回

提簡 젹간 托得過 미들지디 漫漫地 ᄌᆞ옥이 攏拳骨臉 광ᄃᆡ뼈너미다

支了面 ᄂᆞᆺ치ᄌᆞ지ᄒᆞ다 賴得 앙탈

十一回

縱線絛 금슈을셔 青白間道 반뵈 斜合 후리다 扯倒了 붕그러지다

一堝兒 모가여 争口氣 빗ᄂᆡ려 撞鬧 붐번 當三分 뇌돈주마 不是

俆撿撥的 네게휘이지아니ᄒᆞ리라 白鉄刀 날갈 沒来由 탈업시 一物

不成兩物現在 본시모로고쳐음보거든 相官 출관 仵作行人 옥ᄉᆞ장이

十二回

骨堝 두두려지게 番番復復 빙빙돌다 跡道 자국 不爭 엇지 關了 타다

霍地 번득 弓梢 활고지 滴溜溜 수루뉴 風團兒 풍바ᄌᆞ리갓지 斜皮

차련 上下肩 엇게못초다 一分請受 녹ᄒᆞᆫ자리 幹人都關領去了

사환ᄒᆞᄂᆞᆫᄉᆞ름다타가지고가시니 會廵 알거시라 扇圈胡須 가잠나못 揮挫 벌덕

니러ᄂᆞ다

十三回

抓扎起兩條거두츄엇다一套富貴ᄒᆞᆫ덤이지믈則箇조ᄒᆞ리라盡

卯사관ᄒᆞ다免送지송마오黃湯지강做私商的도적질ᄒᆞ는놈惡氣분무

리曉事的슬겁거든剗地도ᄒᆞ혀銅鍊쇠ᄉᆞ슬光着眼눈을멀거쎄

有些蹺蹊ᄉᆞ소곡절이잇도다也知那廝胡爲또저놈그런쥴아되權放

一日暇오직ᄒᆞ로말미주더라말이라疊兩箇指頭손가락두번곱으며

十四回

門館션ᄉᆡᆼ노릇樺楸샹화띄背心등지게匾扎起袴子上面搭

着속것슬접어것초로동이고下口입가시음花糕화젼休笑話흉보지마라

把來喫些가저다가더러먹ᄌᆞ不煩惱沒對付處변통업는가걱졍마라

偌大一箇去處이런큰곳의同討的小孩子어린ᄋᆞᄒᆡ어더드리고

科差실ᄎᆞ一斥糊塗아조미련ᄒᆞᄆᆡ撞籌모동嘔盡他的氣슬거장만
수ᄇᆞ지ᄒᆞ다奢遮ᄌᆞ미잇게不是我懷心術來謊你們내심술이글너
너희들후리미아니라還了願心한무리ᄒᆞ다安排燒紙고ᄉᆞ찰ᄒᆞ다散
福음복ᄒᆞ다改日훗날打甚麼緊무어시어려오ᄯᆡ投齋化緣지먹거나
비ᄂᆞ니라胡猜실업시아논쳬ᄒᆞ다

十五回

攋着脚道다리를드러업드리질듯니르되委紙領狀다짐밧다倒生受
調도로너의를내여勅命ᄇᆡ솔嬭公엿아비·驚扨起来우겨나면如何
分說엇지발명ᄒᆞ리오自理會아라ᄒᆞ여라脚夫짐군打這夫子너를
이다放屁방귀動不動ᄉᆞᆷ젹도못ᄒᆞᄯᅩ얼굿ᄒᆞ면너直恁地苦바로이리셜우

라 絮絮聒聒地搬口 소곰소곰 잠소혼다 分道說 단혼눈 말이 口栈 입시 름

逞能 어순체 고혼다 着待 힘실 舒頭探腦價望 목을늘희 여기우시 엿보 녀 行貨 황 호 小本經紀 미쳔젼근 머으리라 我們去休 우리가 다가는 죽으 리다 不爭 어렵지아 니혼다

十六回

拽住了脚 발을끄으려 머므르다 只叫得連珠箭的苦 다만죳 흘너게 괴로오 물 부르다 怎把打熬得過 엇지견듸여 지너리오 少停一發算錢還你 져근듯흠의 셈혼여쥬마 大脫着膊 팔목부 루것고 且把他來出口氣 오직졔게다가 분푸리혼리라 나 險些兒 하마 드면 沒箇委結 슈왜 혼길 업 나 더 自會做活結頭 산고내여미 여즐아느니 一發上 일시에다 아들면

小舅져근쳐남洗蕩了못지르다科七箇賊人일곱도적놈과부동ᄒᆞ고不
合그릇如何어이그만두리오經발셔怕不先来념녀시라셥是係護
管麼네맛든소쟝이나胡說무삼말고上不緊則下慢우희셔잡죄지못ᄒᆞ면곳
ᄋᆞ래가느리다ᄒᆞ나發落道분부ᄒᆞᆫ되正公轉眼졍히한의ᄆᆞᆯ나엿더니乖覺
약은지라連忙招手ᄇᆞᆸ히손쳐부르다奢遮殺의젓ᄒᆞ다到底필경은過
活살아가다誹誹地聽得人說숫두어리는말을드럿ᄂᆞ니敢知得些
風路어셧츨더라아느냐休得要着冷媛염냥으란보지말고話眼裡말눈
치를보니我行陪話니게ᄡᆞᆯ니면

十七回

爲是맛잠做眼안동ᄒᆞ여不肯招다이지아니ᄒᆞᆫ거늘抵賴他죽기로앙탈ᄒᆞᆫ다

다 打熬不過견디지못ᄒᆞ여 管穀집의셔먹이다 擔閣지쳬ᄒᆞ다 纏障식구

기ᄒᆞ다 擔着血海也似干係죽을일을담당ᄒᆞ고 一步步近조곰갓가

이가면 亂攮딤벙거리다 喞哨響爲號수파롬소릐로군호ᄒᆞ다 看在眼

裡보ᄂᆞᆫ지니며왓노라 閃挫了在腿왼녁다리ᄅᆞᆯ모루쳐노라 가 貼隣갓가오니

운 便有頭腦가독이이시리라

十八回

左側이갓가 四清六活的人귀눈붉고손발지다 不知顛倒아모란줄

모ᄅᆞ고 不着邊際가흘잡지ᄒᆞ리로다 못 細做箇粽子비오장이동이듯

捉摸不住붓박이지못ᄒᆞ다 分顏낫밧고이다

十九回

火併죡이다 拓手존버리다 留客住요구쇠요구창 又 餞貧掌梼桂

圈坐定키다리벗듯고리빡갓치동고라케안져 一包包打開봇짐봇짐으러노코

每樣미가지 自有攞劃연이념이잇느니 蔫生人영민ᄒᆞᆫᄉᆞ롬 承局

숭발接官亭교구졍 擡舉我내게다미쓰이다 不着만나지못ᄒᆞ고 走頭

沒路的길노만바쟈나더니 結果使用麽장ᄉᆞ의빨시나잇느 卜거 只去術

俛人家串그져기셩집오로만다니더니 過房별실 撮合山的누구질 擱

撥쇠도기다 撓攬두두두다 古莫不是那裡曾廝會来아니어되여일

箟頭詩詔빗맛드논장인 有些面善낫닉은듯ᄒᆞ다

二十回

直恁地下得이티도록버려두논가 明日準来니일은부되가마 挑撥

부츄가다 下半世過活 나믄셰상ᄉᆞ라가다 分撥 분별ᄒᆞ다 不開在這裡
ᄯᅥ거ᄡᅥ나지못ᄒᆞ노라 直恁地這等 그리ᄒᆞ여도이리ᄒᆞᆫ뎌라도 厮眼着 서로ᄯᅥ라
短命 감누 檽子眼 챵구무 直等 주ᄃᆞ여 受他兩句兒 비잔말바지ᄒᆞᆫ
ᄂᆞᆫ느 勉强 마지못ᄒᆞ여 兀子 등상 顚倒使性 도로혀셩내다 不要焦躁
셩내지마라 嘈 뉴졍 縫裡張 틈으로여어보다 瞧科 눈치오다 취 捻泛 뭉중
실업다 難日不着 이들이못ᄒᆞ여 單日着 하로가되여도 着了眞病 본샹
이드러나시니 睃 겻눈질 可奈 얄뮈올손 含臉 낫겁 둑 喫嚾不盡 먹은훌이
털써여서 不强似 아니나으나 莫做不得 ᄒᆞᆫ지아닐것아니나 恨 소납다 一
不做二不休 ᄒᆞᆫ번은못ᄒᆞ여도두번부리ᄯᅱ지못ᄒᆞᆫ다ᄒᆞᆫ너 打箇滿天星 눈의
별이나게치나 須不擔閣 지체를못ᄒᆞᆯ지라

二十一回

責限比捕 졍일ᄒᆞ여 잡으라ᄒᆞ다 唆 ᄭᅬ겨 도 憑書 편지가지다 奉帖勾人 비ᄌᆞ 가지고 죄인 잡으려 왓다 鑽將出來 부뷔여 나오다 托的人 미덤즉ᄒᆞᆫ 사ᄅᆞᆷ 任他 아무만ᄒᆞ여도 出浴的舊衣裳 날근 의상 마져 쥬다 劈脊揪住 멱살 토려 잡다

二十二回

跐了 드듸다 火鍁 부삽 却比老酒的滋味 ᄯᅩ 오리 일홈어든 술맛만ᄒᆞ니 有餘還有些貼錢與你 나믈 ᄉᆡᆼ아녀 도로혀 돈을 거슬려 너를 츄리라 厭厭地 이위여 畧案一案 잠간 집다 一兜兜 웅숭그려 그스르고 大刺刺地 거드러거려

二十三回

不憷氣 무셔워아니ᄒᆞᆫ다 都来相欺負 져마다업슈이녀기다 沒人做主 알은쳬ᄒᆞᆯ리업다 放箇屁我 뉘가내게아니ᄉᆞ이굴니오 殼𣖺皮 허렁손이 賠些房奩 방셰간장만ᄒᆞᆫ다 薵惱 져그레 本分人 용ᄒᆞᆫᄉᆞ람 住不牢 붓박이지못ᄒᆞᆫ다 撒潑 잡되다 見外 셔어ᄒᆞ다 이 合鬪分子来 츌렴ᄒᆞᆫ다 笑嘻嘻 방그이웃다 撩撥 긔운더리다 嚙齒戴髮男子漢 니ᄅᆞᆯ웅스려물고상ᄃᆞ빤ᄉᆞ나희라 爭奈武二郎廝 잘난목이그놈이 不爭氣 의젓지못ᄒᆞᆫ기로 裝你的幌子 네셈ᄀᆞᆺ치된거시니 擲不出的驚 셔방ᄒᆞᆫᄂᆞᆫ거집 做喬家公 얼운도틔ᄒᆞᆫ다 要發作 셩내려ᄒᆞ고 與人放刁 놈의게힝악ᄒᆞ여 唱箇大肥喏 크들지게디답ᄒᆞᆫ다 棗糕 대초떡 銀搭子 인졀미 花脆

膊식골무셕 多加些酸맨이더시게ᄒᆞ여라 回頭人지가겨집ᄒᆞᆫ 差一兩

歲ᄒᆞᆫ두히를난다 放些甜달게ᄒᆞ여라 ᄒᆞ 伏惟安置보라ᄂᆞ니평안이주무시오

兩頭来往趕양편으로오락가락바자니다 只吁他舐不着다만ᄒᆞᆯ쎠못ᄒᆞ

게ᄒᆞ리라 不是影射的김도소이못ᄒᆞ노라 지 和大辣酸고명잘ᄒᆞ엿다 記

了賬目치부에올너다 脚步緊밧비ᄃᆡ러 吁做鬼打叟귀신이희를지엿늣

나 不䒬市마를겨지못ᄒᆞ엿다 雜起養口잡버어더여먹노라 ᄒᆞᆫ 打攪뎔여

여 多是劄地不得못될일이만ᄒᆞᆯ가ᄒᆞ노라 捱光빗되다 撒料보치다

十捉九着열번이면아홉번마치이다 虧殺고마볼순 衣料의련 賣弄추다

路岐相央갓가지로보치다 澆手손베시 搭救말니다 十病九痛

여흘이면아ᄒᆞ례을알으리라 勤捎거드림 打脫了버스러지다 打着攙鼓

兒 손벽치며 嘔氣 긔막히다 休要囉唣 잡되게구지마라 句搭 희롱ᄒᆞ다 挽
歆郎 상두군 雪梨 문비 着他其病 본샹이도러낫다 鑿兩箇栗暴
ᄃᆡ강이두번주여박다 馬蹄刀木杓裡切菜水泄不漏半點兒
也沒得地 둥근갈노나무족박에ᄂᆞᆫ믈을ᄡᅥ을변믈이흐르지아니ᄒᆞᆫᄒᆞᆫ나반졈도ᄯᅵ혜ᄯᅥ러
지지이나ᄒᆞ라라

二十四回

恁地棧得肥𦢊𦢊地 엇지비여지게살지엿ᄂᆞᆫ고 你在鍋裡也沒氣
네솟희셔살마도김도업게다 頭上肐膝 버부릇더두두려지다 掛一小鉤子
다랑귀ᄯᅱ여보치다 激你 져를격ᄒᆞᆫ다 做牽頭的 노구질ᄒᆞᆫ다 謊做一圓
口裡 겁ᄂᆡ여입을웅숭그리다 紙虎 쁠ᄃᆡ업ᄂᆞᆫ바삭이 被角 니블귀 捲過了

被니블마라앗다

二十五回

待要胡盧提入了棺의수이묘으려입관ᄒᆞᆫ자ᄒᆞ니子母炊餅소박은구운떡

千秋旛천금곳흔것靈牌지방蓬鬆悅了鬢兒머리를슈굴ᄒᆞ게ᄒᆞ엿지고

睜得圓虎彪地눈을둥구럐게번ᄯᅧᆨᄯᅳ다紙馬舖그림파는져자洗泥

接風사괴다大拇指按住掩心엄지가락으로양마쇽을눌너쥐다肐膝

肐膝抖着손목을벌벌ᄯᅥ다挺挺뻣뻣지

二十六回

省院정젼對付那廝이놈을쳐치ᄒᆞ다頭院니ᄉᆞ行院ᄉᆞ당又길ᄯᅩ간나희

二十七回

儞和他強了 네져와막셔시니 絡着手 손목에동아다 梯己人 시죵ᄉᆞ드ᄂᆞᆫ람

紙爐 지젼ᄉᆞᄅᆞᆫ화로 蹺蹊 곡졀 嬌惰 지쳣다

二十八回

文文謅謅 셰쇄ᄒᆞᆫ잔말 賺錢 돈버으다 一遲宕 ᄒᆞᆫ번만결더가다 操

刀的 칼잡이 西尾 고방 當掌 결산 見識 갈으오다 討野火磨 못미마즈

려ᄒᆞᆫ느냐 虛影 헷머르다 一蹉蹉將過來 발맙발밤도라셔다

二十九回

蒼娘 시녀 獻勤 허리셔셔여 點閘 적간 悄悄 가만가만

三十回

髽角兒 시양머리 髿了 고마올손 趂錢 돈버으다 支脫脚 버스려져도망ᄒᆞᆫ다

猻刀갈에고ᄉᆞᄒᆞ다

三十一回

開了泥頭두에벗기다杓子주기漉法우악ᄒᆞ다橫拖倒拽헤영가티

지다論理다ᄉᆞ리다我的造物내팔ᄌᆞ야有這些毛病이슨이잇ᄂᆞ니라

溜骨髓겨집ᄒᆞ단말이라

三十二回

潑烟花못쓸겨집沒來由연고업싀上户부쟈歐氣긔막힌다不肯和

你干休너와그져ᄂᆞ아니이스리라

三十三回

成精的東瓜셕은동와當在這裡待你取錢來贖녀리젼당으로

두고 돈가지고 와셔 믈너가거라 怒挺脯胷셩ᄂᆡ여가슴을뒤얏다 受邦大頭

巾的氣문관놈의싼수바지

三十四回

花腔皷틔극그린북이라 闘到深間裡자아지게밧호더니 攪做一團ᄒᆞᆫ틔얼키여시니 橫頭上실엉 骨查臉광ᄃᆡ뼈ᄂᆡ밀고 鮮眼눈이ᄲᆞᆫ고 홉做

脚底的下泥발바당의ᄯᅥ로아느니 奢遮맛잇다 且靠後아직ᄂᆡ려두고

䞓紫어렴풋시의혹ᄒᆞ다 一哭一箇昏迷ᄒᆞᆫ번놀제ᄒᆞᆫ번식긔막히다 不曾

来句擾일즉잡으라와렴병이자아나ᄒᆞᆫ다

三十五回

一發암츄로 休胡說실업슨노리마라 休煩惱셜워마라 你休使見

識賺我入来 너ᄂᆞᆫ 눈치잇게 소겨 들어오게 마라 好看錢 형리텨ᄎᆞ 自有對

付處 절노 변통ᄒᆞᆯ 길이 잇ᄉᆞᆯ 거시니 嚇做一堆兒 여러히 겁니여 ᄂᆞᆼ송그리다 不

爭隨順了 순종아닐진ᄃᆡ 紅絲虎眼 홍ᄉᆞ 얽킨 범의 눈 先交了錢 갑슬

먼져 밧노라 邑裡沈重有些油火 집이 무거워 기름ᄯᅵ 잇다 着了道兒

속종이 잇다 在那裡躭閣了 어ᄃᆡ셔 지체ᄒᆞ는고 連連 년이 擡舉咱家

날ᄉᆞᄅᆞᆷ ᄒᆞ다 開科 손ᄡᅳ시우고려

三十六回

賣弄有錢 돈 만흔 톄ᄒᆞ다 敢回我話 셩심이나 너 말을 ᄃᆞᄉᆞ리ᄂᆞ냐 却對要

和他放對 마치 저와 버러셔셔 되젹ᄒᆞ려 ᄒᆞ더니 肋骨上 겻가리 跟鎗一

交 ᄒᆞᆫ번 ᄯᅡᆫ 속치다 使得使不得 ᄒᆞ여도 ᄒᆞ여 보지 못ᄒᆞᄂᆞ니 房金 방갑 快活

睡一夜식흰이ᄒᆞ로밤자자看在眼裡눈지녀여보고瑣瑣地찰찰이稻乂도리셔做好漢사ᄂᆞ희체ᄒᆞ고脚高步低가만가만니겁녀여쳔방지방며다一昧地얼셜의罷罷ᄒᆞᆯ일엄다把出來不迭미쳐못녀여ᄒᆞ여做賣魚牙子어살의감고놀웃ᄒᆞ나니藏閫말속의변이쓰다做箇抄事셔긔를솜노라

三十七回

賺漏了속여일엇다大把價楂來크다계목희여다가魚却醃了고기ᄂᆡ암서나다船梢ᄇᆡ고물行販장수들紙也未曾燒소지도밋쳐사로지못ᄒᆞ여셔一絞摸헤져겨반져보다青白鬃脚반뵈로발동이고多耳麻鞋총만흔메투티俏鬍兒밉시잇는생토관着道兒속앗다做一團口

裡只吐白水웅숭그려엽되여멸가건물만토ᄒᆞ더라茶酌三杯초초이셔너잔
먹자

三十八回

剖肚價疼ᄇᆡ알잡으ᄯᅳᆺ는듯시압ᄑᆞ다沒頭鬼임ᄌᆞ엽ᄂᆞᆫ귓거시라沒地裡
지향업시醮得筆餽붓의먹못치기를흠벅이ᄒᆞ엿다浸潤他제덕이나입으려ᄒᆞᆫ
여伸着舌搖着頭혀을ᄲᅵ지고머리을흔들며搔首不知痒處어림
이잇셔도엇지ᄒᆞᆯ줄모로다一佛出世一佛涅盤ᄒᆞᆫ눈은ᄲᅵ지게되고ᄒᆞᆫ눈은ᄯᅳ
지못ᄒᆞ겟다切不可沿道耽閣각별길의서지체말나使些見識게고
를부려加料麻辣熝豆腐如何ᄆᆡ온고명ᄒᆞ여지진두부엇더ᄒᆞ뇨捩門
出去문듸령ᄒᆞ여나가자死心搨地이리된후ᄒᆞᆯ일업다有箇老大朊卯

크게드려날
곳지잇다

三十九回

扣着日期 일긔을맛초다 免致後患 쥬기를면ᄒ려ᄒ고 大後日 글픠 景

命 란일 判了 져기다 漏轉身東搭上利子 환싱ᄒ라ᄒ고 나무다불을을

이며 納坐下 마조안ᄌ 強要挨 억지로밀다 齊齊地挨定了不動

일시의벗밀고셔셔 움즉도아니ᄒ다 炒閙不住 공복듯기요란ᄒ소 리샹치지아니ᄒ다

火雜雜地 불이펄젹나게 這般合苦 이ᄃ도록별음보다

四十回

幾番唆毒 여러번독히교독여 再做箇天大人情 다시하날곳스흔은혜을도

리뫼 促掐的事 약착ᄒᆞᆫ일 劈腰抱住 허리을후리쳐안고

四十一回

我和你受用快樂나와너와호강ᄒᆞ고 巡綽술ᄂᆞ도ᄂᆞ니라 把不住簌簌地抖박이지못ᄒᆞ여우수슈써려지다 黑騰騰地罩了거머어득ᄒᆞ게끼이여셔 搶去搠一搠창으로질녀보니 死也掙不脫죽기로버르져겨버셔ᄂᆞ지못ᄒᆞ고 螺髻사양ᄆᆡ리

四十二回

挽札得爽利상그라졔거더추고 專與人家做長工젼혀남의고공ᄉᆞ리ᄒᆞ고 我自從小路去나ᄂᆞᆫ즈럼길노다니지 都不從大路走誰耐煩뉘가답답히도라가리오 抓鬏兒頭巾상호만가리온두건 留下賣賭錢우비쥬쎄장비니라 把黑墨擦在臉上ᄂᆞᆺ희거머게먹칠ᄒᆞ고 嚇碎你心

膽네염통과간이놀나부스러지리라没你娘鳥興비암거리업서원손길의난놈이로
다那裡來的也學老爺名目在這裡胡行네ᄂᆞᆫ어ᄃᆡ로셔왓관
ᄃᆡ어른의명목을입니니고예셔못쓸노릇ᄒᆞᄂᆞᆫ다辱没老爺名字어른의명두을망신
시켜셔나鬼也害怕귀신이라도무서워ᄒᆞᆫ다ᄒᆞ기로不轉眼的魔君도
아니잠작이ᄂᆞᆫ마군인들이淘了米쌀나다我險些兒和你不斷見了
내가ᄒᆞᆫ까ᄐᆞ면이녀과셔로보지못ᄒᆞᆯ번ᄒᆞ엿다晦鳥氣麽ᄋᆡᆨ셔다ᄒᆞ더니你去張
一張ᄌᆞ네가셔여어보라我和你却對付了他니널노더부러져을죽이고
怎耐這廝이놈이불측ᄒᆞᆫ고악측ᄒᆞᆫ놈이로다劈鬍揪住생호자바숙이고窩
裡抓些炭火來아궁지의숫불을헷치고挾七挾八진둔ᄒᆞᆫ둥把尾去
窩裡一剪꼬리을속의너허두루단쌀이라捨命一截죽조ᄒᆞᆫ고지르내氣

莞숨둔没來由哄你做甚麽연고업시너을속여무숨ᄒᆞᆯ다放刁把纜

흉악ᄒᆞ로열기치며老郎土兵례졍졍ᄒᆞᆫ향군놈劄口不喫입의다일만ᄒᆞ고먹

지아니타一昧地열결의

四十三回

打扮做承局승발아젼맨도리ᄒᆞ고鳳眼朝天긴눈시우흘향ᄒᆞ엿고細

細有幾根髭鬚가ᄂᆞᆫ수염이셜뮈엿게나고裡裡外外안너흘것안너고거

족흘것거족ᄒᆞ고

四十四回

熬不得夜밤은견되지못ᄒᆞᄂᆞ니只顧隨分且過다만되ᄂᆞᆫ되로지내여라

却没工夫出來나갈결을이업나라今得二週年做甚工果與

他이졔되생이되여시의져를위ᄒᆞᆫ며마지막져을놀이려ᄒᆞ기로料理찰ᄒᆞ다照管
보ᄉᆞᆸ히라打箇問訊절ᄒᆞᆸᄂᆞ이다乾爺아ᄉᆞ비양掛麪마른국수壞鈔돈업
다시ᄒᆞᆫ鬧熱도어든즁瞧科눈치짐착ᄒᆞ다怎的消受得어지곤이빠드리오
隨喜구경ᄒᆞ다看來拙夫보아ᄒᆞᆫ버우리남편이라不是一日了ᄒᆞᆫ번아니
나也不恁地計較ᄯᅩᄒᆞᆫ이런일은고계치아니ᄒᆞᆫ다血盆顛心졍셩으로
비ᄂᆞᆫ되로連手接茶손삼주로셔쇠차을바드며兩隻眼瞪瞪地두눈
의물을그령그령ᄒᆞ게ᄯᅳ고一雙眼笑迷迷的두눈이기기푸러지게ᄯᅳ고做
箇出場也不見得못보드시져즐비라ᄒᆞ고挿口道깃다ᄒᆞ오는ᄲᅳᆯ이라
虛心冷氣ᄆᆞᄋᆞᆷ노코긔운며코都下了襯錢블젼다노ᄒᆞᆫ후의欵了不
安몸입푸ᄒᆞᆫ고畫卯承應官府ᄉᆞ관후의관가의디령ᄒᆞᆫ다洗頮項목믈

ᄒᆞᆫ고 通羅䟐頭 [츅원문닑은소지ᄉᆞᆯ니다] 錠 [빗다] 朱紅托子 [쥬홍칠ᄒᆞᆫ티을ᄲᅢᆺ혀]

反來打攪 [도로혀와폐시기다] 我的老公不是好惹的 [우리낭군은거]

[우가장이너려오나니라] 我老大耳刮子打伱 [너너을ᄲᅡᆷ을그게치리라ᄒᆞᆫ고] 害

殺小僧 [소승이상ᄉᆞ병알은리로다] 我自賣了迎兒 [녜녀ᄉᆞ을딸니여] 榮

望 [망보다] 高聲叫佛 [남무아미다불크다게지르면] 籔去了 [슈루가더타] 當

牢上宿 [옥의상직자연] 便似攝了魂魄的 [정신ᄲᅡᆫ여잇서] 冷地裡

[가만니] 死巷 [막다른골목] 巴得天明 [날ᄉᆡ기밋쳐] 鞝鞋 [운쳐] 醉是醒

時言 [생시의마음취중의나다] 妮子 [죵년] 又不曾惱伱做甚麼了煩

惱 [네게셤니지아니ᄒᆞᆫ셧거돈무슴일노셜워ᄒᆞᆫ는다] 只指望一竹竿打到底

[티ᄭᅳᆺ치곰니도록살가보라더니] 誰想伱不與我做主 [뉘가네날을알은쳬아니]

한줄싱각을 ᄒᆞ여시리오 却又怕你着他道兒 네남의게속을 가념녀ᄒᆞ고 看

着放出刺来 점점ᄂᆞᆷ이 드러나 有孕也無 몸뷔지 아녀지 裝你的幌

子 네을보아 덥혀두고 說得箇沒巴鼻眼 눈도고도업 는말ᄒᆞ기는 便先来

說破使箇見識 몬져와의ᄉᆡᆼ스러 이셜파ᄒᆞᆫ미라 我且退一步了 네 잠

간의 ᄒᆞᆫ고 我也分別不得 너발명은 니ᄒᆞ여도 이 務要與 아모죠록 져을위ᄒᆞᆫ

여 把刀去頻子上閣着 갈을다가목우 희진듯누루고 喫他出鉞 져 을

부루는 군 ᄒᆞ니라 只顧敲甚麼 ᄲᅧᆺ죽이두다래 니므슴즛시니

四十五回

鐵頭猴子 머리둥친 아희들 涅盤 싱도ᄒᆞᆫ중 죽단말 却不休氣 ᄯᅩ지 지아

니려 ᄒᆞ고 賽他 져보다 낫게 圓寂 중죽 다 說親 혼인이 르다 拔去葱管

취쟝섀히고 一些兒休賴 조곰도앙달말고 含糊不得 흐련혹시말고 問

後頭一箇備細緣由 가지낫낫치연유을ᄌᆞ셔히무러 求我圖箇長

便 날다려길게조도록도모ᄒᆞ자ᄒᆞ여 便燃得出去 들도두어녀셔보고져ᄒᆞ여 這

般搭纏 이뎌도록안섄ᄒᆞ애 做脚 다리놋타 上宿 상직자다 擣得乾淨 말가

게ᄯᅳ더 報曉的鷄 비루루아는ᄃᆞᆰ을 見鬼了耶耶 잠ᄭᅩ되ᄂᆡ 野猫 삵

黃狸子 조졉이 陪了 무더주재 休討野火喫 무덕이비므즈려말라 左

右只是左右 이려나려나맛치ᄒᆞᆫ가지라

四十六回

氣得緊 숨을급히헐헐이며 漲了面皮 낫가족이부무러지고 咨牙露 니들

드러니고셤수염을뒤즁그려지고 也抓扎起 ᄯᅩᄒᆞᆫ되만도리ᄒᆞᆫ고 白楊樹 ᄉᆞ시나모

兎路 막다른길노 外面炒鬧 밧기공복듯ᄒᆞ거늘 剃得赤條條的 발가벗기고

四十七回

對頭 원슈 伱不省了 너ᄂᆞᆫ모로리라 眼也花了 눈이현황ᄒᆞ다 刺斜裡 엽흐로 逼箇住 칩더바드니 逼斜了 趕攏去 밧치여쓰러지ᄂᆞᆫ김에다라더러

四十八回

面上來投入夥的人 안면으로당의두입ᄒᆞᄂᆞᆫᄉᆞ롬 套體 두루막이 下了窩弓 챵이을뭇고 背廝靠着 등을셔로다이고 窩弓發響 챵ᄒᆞ둥괴ᄂᆞᆫ소리 骨渌渌滾 두루루구으러 百般開不開 빅번이나열여ᄒᆞᆫ여도여지못ᄒᆞᆫ거

놀 鑌鐄銹了 자믈쇠슬의 동녹스러 徐頭倒刺我大虫 네도로 범을써

쓰너 새 化頭 거어 지음 喫打不過 못다 ᄒᆞ여 못 只得依他招了 다므

저의ᄒᆞᄂᆞᆫ디 로다짐두다 透他關節 청길통ᄒᆞ 리로다 則休 말녀 ᄂᆡ와 是我爺

面上的 니ᄂᆞᆫ나의아 비편대례보 牌住 장승션티 셔ᄉᆞ나니 白當 구 실 家下窮

집이가 ᄂᆞᆫᄒᆞ고 忙少間 골몰 ᄒᆞᆫ다 箕笛長便 조흘티로 메꼬ᄒᆞ고 爭着不多

간티로들니 지아니ᄒᆞ며 甚是蹺蹊 가징곡졀 이잇ᄂᆞ니 透風 소식을 통ᄒᆞᆫ다 罷罷

罷罷 흘일업다 흘일업다 匣林 착 고 一趕趕 조츰 조츰 牢眼裡 녹子 명 恐

耐 싹착 ᄒᆞ다 揹帶駄載 짐동쳐 잇고

四十九回

帶了如此行頭 이러이러ᄒᆞᆫ 힝 구을가지고 一樣信地 아조밋도 록ᄒᆞᆫ일이

라守在監門左側문ᄀᆞᆺ가이직희오고楚바자너다省口말못ᄒᆞ고扇
圈也似坐下북치살펴친듯시산져抄扎家가산을적몰ᄒᆞ다

五十回

新来打楚的行院서로더드머은ᄉᆞ당이잇ᄂᆞ니构欄산듸논는더이라有
那一般打散ᄒᆞᆫ가지식만ᄒᆞ고노되端的是好箇粉頭참으로조흔겨
집일너라褁着磕腦兒頭巾덜뮈두건눌너쓰고開科젹션ᄒᆞ라ᄒᆞ는소리拍
下一聲略方미면조을치니合棚價와산디의셔務頭고뷔ᄉᆞ의休教
空過그저지느가게므르소셔頭醋不釅二醋薄맛국초가시지아니ᄒᆞ면둘적
초가승겁다ᄒᆞᄂᆞ니라可出箇標首가히졔목을니소셔桅邊靈수청미성要
逞好手조흔손비자랑ᄒᆞ려ᄒᆞ고絣八허영가리只一枷梢打箇正着

갈머리로 흔번 을박아치니 只做水火다만ᄉᆡᆼᄉᆞ조음 누는체흐고 家私儘可醅

償가손을다드리면 히속은바치디라 가 攏在些裏물솝희 간초고 去要一迴

了來흔바탕노다 가ᄉᆞ너라 挖在肩頭上목몰티 ᄉᆞ곡 有些好歹조 곰

아모라일 이씨시면

五十一回

有那等獻勤的賣料그런쳡흐는놈 들팔이여셔

五十二回

背地裏喫葷몰녀셔고 기먹고 恐一日餓흐로만곰 기리라 連排價

온가거시니여흔 일ᄌᆞ되ᄲᅢ비다 自管自家在下邊遮了去그져 더로아

리셔가기ᄲᅳ 가는고다 休使道我兒要我날을속여 귀롭마라 理怨울너 서깃

다 你便打將起來 네문득아단최라 佛眼相看 또흔쑛츠로보자 這

箇太莽了些 이리너무무지흐떠시니 閑管之事 실업시살은쉬흔는일 烟

煨煨地 연긔무록모록나고 冉冉 동실동실 大疙瘩 어혈지다 刮刺 와라라

法物 쇼술흔는연장 好歹 아모거나 風話 미친소리 將息 조라흔다

五十三回

面皮有麻 얼골이얽리고 鼻子上一條大路 코말니넙젹흐더라 鐵砧

모로 鐵鎚 맛지 鉗 직게 鑿 끌 躭閣不得 지체못흐리라 催併得緊 저촉

을급히흐다 大篾籮 곤동소리라 扎起一箇架子 가루서믜고 眼目

畧開又閉 눈을약싼산락감우락

五十四回

闆領前去타지고가서務要아못조록紡車물녀五明黃花馬가라
간ᄌᆞ공골돈졉박이楔子拔去기을ᄲᅦ히다

五十五回

㐌辨賺他엿결ᄯᅩ고저을속여有獅子滾ᄉᆞ조가ᄉᆔ쳐ᄋᆡ구을나는모양이잇는나
鮮眼睛눈을흙뜻ᄒᆞ고熱鏊子上螞蟻去頭無路ᄃᆞᆯ는노구뎐의개야
미ᄲᆡᆼᄲᆡᆼ도라가다烘籠비롱

五十六回

釘了暗椿가만이말독을박다鬆了頭帶비ᄯᅴ을늣츄고切草煮料을ᄡᅥ
흘고쥭ᄶᅲ다

五十七回

道粧打扮도ᄉᆞ의민도리ᄒᆞ여더라 性慢반쥭누다

五十八回

倒不煩惱도로혀걱정아니ᄒᆞ거니와 金鈴吊掛금방울ᄃᆞᆫ난간등 執着

骨朶ᄒᆞᆯ을들고 撲通풍덩 大家뎌되

五十九回

遮莫怎地아모리ᄒᆞᆫ편지 那裡鱉拗得엇지우ᄂᆡ며무르리오

六十回

上風放火下風殺人치다ᄅᆞᆫ불노고나리ᄃᆞᄅᆞᄉᆞ롬죽이고 別遭다른적의

暗號군호 綿紗주ᄉᆞ 沿邊가ᄃᆞᆯ운 呂公絛셰초ᄯᅴ 戧幾根鬃鬆

俽俽ᄒᆞ고숙굴ᄒᆞᆫ 掛金복ᄎᆞ 搖搖擺擺흔들흔들두두ᄎᆡ며 跟定了笑ᄯᆞ라

가며웃기만ᄒᆞ더라 不是你便是我 너아니라도ᄂᆡ로고나ᄒᆞ고

六十一回

排排地 초례로 爲由 핑계ᄒᆞ고 住口 입덥치다 一些兒不少 ᄒᆞ나도업지아니ᄒᆞᆫ다 眉尾相結性命相撲 쏘리를맛비고숨을결단ᄒᆞ쟈고 抑衆人 不過 중인의여지의면뎌지못ᄒᆞ며 做了一路 ᄒᆞᆫ편이되여 必中套圈 반다시속으미라 割猫兒尾拌猫兒喫 괴쏘리를베혀괴밥의범으리ᄂᆞᆫ셈이로다

有在這裡 맛ᄂᆞᆫ대로 莫要着你道兒 네게속지아니려ᄒᆞ면 一勤 ᄒᆞᆫ번잘나 攪頭一杓氷氷 머리골이빙믈ᄒᆞᆫ여 事做拙了 일이그릇되엿다

六十二回

你這與奴才做奴才的奴才 네이종놈을위ᄒᆞ여종노릇ᄒᆞᄂᆞᆫ종놈아 做

事做撒 시작홀일이섯맛 기가지호리라라

六十三回

轉燈般廝打 구을이둥치싸호다 갓 肋窩裡 겨드랑 肋羅裡 색구리

六十四回

囫圇死 동여죽이면 醉酒 술거르다 托大 모숨녹고 漏我 나을속여

六十五回

打一箇踅 혼즈바즌나더니 擔着血海的干係 죽으리을담당호여 鬧

蛾兒 셕유황 挾在肋 겨드랑이의끼고

六十六回

直上直下相李逵 니규의우사리보홀터보니 打箇搭墩 쳐쥬져안치다

鼈口氣우기다셩결의相撲爲生탁견으로셩비ᄒᆞ다捉人不着남의ᄭᅦ붓치지못ᄒᆞ다爭口氣ᄃᆞ토다便好回口도라와말ᄒᆞ기조다拖起刀背갈등으로둘너

六十七回

一發躧上일시의조ᄎᆞᄂᆞ니番犬伏窩之計호박기굴의미복ᄒᆞᆫ데고

六十八回

一索掴翻ᄒᆞᆫ오라의동여지와不是好惹的거으지못ᄒᆞ리니和我們不干羅우리ᄅᆞᆯ고만ᄃᆞ지아니ᄒᆞ리라不與他擔些干係져ᄅᆞᆯ위ᄒᆞ여도읍ᄒᆞᆫ일ᄉᆞᆼᄒᆞᆫ여ᄌᆞᆺ지아니ᄒᆞᆫ고買我們做甚麼날다려속이라ᄒᆞ니므슴일고豈爭他一箇엇지ᄎᆔᄒᆞ나ᄉᆡᆼ이리오去衙前叫屈和你也說在裡面관가

의가위여너암조로속의든양으로니르리라 却總上胡梯踏了箇空 앗가스다리의올나오다가헛드듸여 爭些兒跌了一交 ᄒᆞ마트면너머질번ᄒᆞ여 兩腿各打一百大棍 맛곤장일빅을치니 必然喫虧 필연속으리라 到水火坑邊 똥오좀구덩이가의니르러 賺他回頭 저를속여도라혀게ᄒᆞ여 就搭磚石頭敲開木杻 돌을집어차고를세치고 睜着髈眼 마늘눈을부릅ᄯᅳ고 使箇就理的人 심복ᄉᆞ롬으로ᄒᆞ여곰

六十九回

都有疤痕 도시헌듸ᄌ곡이잇고 兩厮並着 둘이어우러지거늘 抹耳根上擦過去了 귀깔을븟쳐지나가거늘 掙扎起 거너지르고

七十回

欲建一羅天大醮쳔변을ᄎᆞ라ᄒᆞ룩扎縛三層臺셰층부계를ᄆᆡ고

西遊記語錄

一回

頑耍了一會 미호갈니미흔바탕이라 滾爪湧濺 물블이ᄭᅵ이ᄯᅥ소ᄉ뎌미라

造化大造化 天作也 家當 器物也 妝箇鬉帚 거즛법인체흔야재이미라

搖搖擺擺 行步翩翩貌흔들흔들 丢了斧 丢棄也 找路 找尋也 磕頭 低頭至地 朝禮 拜也 也罷 已矣

二回

抓耳撓腮 抓爬也撓搔言耐喜不勝 撤下 置也 諕得 驚悸貌 謎 隱語 巴不得到晚 巴耐也 六耳 指言聞一知十 利害 要緊 觔斗 翻身也乘雲貌 哩 語助

賣弄手段 振 耍子 遊戲也 捻着訣 諗真 按下雲頭 停雲欲下

咦語辭見個上下要決勝負打扮裝束鑽襠板腳掃毛摳眼直
打做一箇攢盤執人扛擡而來襠視也如角觝戲之類也

三回

那廂此間一壁廂一邊也倒好倒還也將身一抖抖擻也以手摩而平
之也吆吆喝喝可喝狼抗不安不正貌又亢이크다撲的聲也又咋觧너머져
數用鎗鉤放手勢架子加刃交戰害怕忌憚妻的再無妻的真宗也실上다시업
다約有斗來約緫也斗來自小而大也索性強費心力好歹好歹猶言吉凶休咎
善惡歹音代呀語辭又開門聲痛哎呀搭在手中손에잡다了帳了帳猶言
了當絆着一箇草紇縺跌了個躘踵풀에걸녀너머지다

四回

哄我 哄誘也恐也날을속이다 朝上禮拜 拜向空也 唱箇大喏 喏應聲尊人百福我人平安之稱也 泯耳攢蹄 泯弭也攢簇馬扁蹄之狀 忽喇的一聲 홀렬소리

引接風 酬酢風情言與人飲酒也 愰一愰碗來粗細 愰翻也碗來粗細能大能小也

活活的羞殺人 活活明白也的語辭羞慚欲死也 膿包 無血氣也고름둥이

扢扠的一聲 物拘礙有聲也 忙哈哈 哈哈歡咲也 惡狠狠 入之貌惡負

了了乂乂 交鋒勢也 倒也會弄些手段 會理會也言能識弄其手段也

五回

即溶牙倈嘴道 溶合也倈出也 攢事 攢掀也言一件事也

六回

劈手相迎 劈擗也言彼此相迎 木木樗樗 鳩飛翅聲又쎗쎗거나

七回

被他一捽捽了箇栽葱脫身走了 져의게 씨어 늘너 여인ᄒᆞ여 ᄶᅡᆨ 쎈 져 다라나 미라

八回

教我磕風 磕低頭着地也言使我稽顙於地也又磕風下風也

九回

瞷眼 金色鯉魚 瞷瞷瞥也

十回

乒乒乓乓 빙빙빙빙 揮動貌

十一回

我家是清凉尾屋不像這箇害黃病的房子花狸狐哨的門扇清凉瀟洒也言我屋則好而黃病痘也温熱欝積之所生故房子挟小不通氣之謂也花狸狐哨的門扇一角門也

十二回

是風子是傻子風狂也傻頑也音斜兩件東西두가지것談苾蒭洗業的故事苾蒭削髮言禪談古事

十三回

呆癡呆口欲言而言不出也癡愚之極也打撑撑裂也拐步而行拐杖也剪尾而來無光彩也糖人寃人小人阿諂之貝撇得撇棄也老兒滴荅

甚麽誰和你發保說甚何也麽語辭和與也保保人言誰為你發相保之說甚

麼五爻六爻爻事也言朝三暮四定風樁上栿名

十四回

剪徑行盜賊虜掠事

十五回

揞白了今之自刎之義用手揞涼蓬言以手掀之蓬索也般儸儸回回

出盡貝又兩臱國名

十六回

咬指道손가락씨믈마猶悔也睋了他一眼又눈흘긔다嫉視貝便不則

聲悄悄的道言氣拙而侍稍定低聲細語也抖開拂開騙誆也消解開着

消詳也解會也揩了眼淚也揩拭楂楂的㘴响風生버셕버셕나모에바

ᄅᆞᆷ블소리ᄂᆞᆫ지라 一骨魯跳起 骨魯猶言轂轆也又ᄒᆞᆫ번소ᄉᆞ올나블紀ᄯᅱ여 罷罷

罷 已矣又마라마라 急辟刖隋雲 刖聲也言乘雲行急墜下雲來

十七回

放刁 虛謊妄誕

十八回

欽棍劉禪 矢ᄃᆞ락ᄋᆞᆯ허리의엳에ᄭᅩᆺ고 雄糾糾的 威盛皃뒤룩뒤룩 只管

苦掙嚷道 惹起鬧端也 方便 合於便宜也 蹭蹬 失路皃又빗ᄀᆞᆺ다 格刺

星扯位 格刺星凶殺星扯執也擘也 湊四合六的勾當 言東西無不同也又

곤꾀ᄒᆞᆫ말이라 花費銀子 花費猶云虛費也 一來照顧郎中二來醫

得眼好 照管也來即也醫得眼好言治眼疾療也 打發不開 始作事曰打發不作事曰

不也

開乾淨錯了太錯了又是멀이고로다被他磨慌了磨研也慌不明白言

被人幻矣如鬼揶揄是也買賣以偷物賣於人沒天理之買賣又흥졍造化低了拙手

段也抹了一抹塗也

十九回

鑲糖的分貨漢濁貪數子어린놈이

二十回

厭鈍的話虎謊我十分厭鈍不精也話虎騣兒言以可笑之說謊我也又喫

句三碗飲酒三碗止火居烟火之居也人家也抓了一番爪刺一番都躭

閣了抛置

二十一回

你的明杖兒呢 責杖也 又瞽杖 慌得一轂轆爬將起來 ᄅᆞ히 ᄌᆞ올

래너개나 儱憅 罷獘皃 又怔也

二十二回

認做箇老走硝裡 날을 올린 ᄉᆞ로 알나 眼巴巴的 眼有英氣 怎生奈

何 어ᄯᅵ ᄒᆞ리 這廝 이놈 이 少打的潑物 덜마즌 몹쓸놈 幇手來的 동모

ᄒᆞᆫ나 就把喫奶的氣力使盡了 어믜졋ᄠᅢ 먹은 힘을 다ᄒᆞ여 刷的落

下来 刷振羽皃 言神仙落下而来也 只綳得箇平手 言無病之手 既乗了

迦持 歸佛教也 骷髏 ᄒᆡ골

二十三回

[鬼監][鬼匹] 不正皃 掛捏出俏語低聲道 몸을 뷔틀며 어엿본톄ᄒᆞ여 니ᄅᆞ되 却

不強似做掛搭僧 비러먹는즁되느니에셔낫다 注西將豬 셔편으로갈즛ㅅ다

二十四回

嗺喤 덤벙이다 會撻鬼 會適也 撻鬼夢魘也 又거즛부리ᄒᆞᆫ다 會緦風 바름斉름잡다

蹺蹊 不正皃 嘓啅啅 齒牙音又셜뎍셜젹 尭前尭後 言事之首尾物之前後無憑而無色之謂也

二十五回

就橇開門 開門之意 摇棬打眊 天덕天뎍조으다 打開寒禁 如衆人等狀救彼人橫罹何不一齊去了 且把善字兜包起 어질션ᄌᆞ자바ᄡᆞ셔이르키다 卽隱惡揚善之意 扎他一扎 두드다

二十六回

亂控 控摘也 㕚出 以爪刺掐又何비다

饒蟲拱動 食蟲이움젹이다 搭個窩鋪 이부ᄌ리펴고 趙觔斗弁

二十七回

二十八回

椰子酒 椰子果名甘酒也 兜住馬 兜執也執轡立馬也 冐冐失失 迷亂皃

吃些兒鈔

二十九回

東風猶可西風也將就若是南風把青天也拱個大

窟窿 아모바람이라도됴흐나南風만나면하늘을벗질너큰궁글번다

三十回

輪開藍靛手 사쳥빗갓흔손을펼쳐 散火 撥悶 他郎哭喪棒 喪杖 一

頭藏在草科裡拱了個猪渾瑭這一覺 言藏身草裡捲起嘴唇之

狀如猪之汗染於塘泥濕地同 溜阿溜的溜 滑脫貝又슬멋슬멋가다 副嘴臉 형이

살 你来這里怎的 你来此何為 盼望 바라다 見面孤拐 見顏情歇

打肫

三十一回

吽吽 音音牛吼聲 使一個高探馬的勢子 諺勢男子之陰莖言舉而高之也

三十二回

須要發發昏哩 發昏暈 不来值說 言其又不来而出合當之說也 却那

服䘮化了演樣言演習模樣也抡植的一下一言呑了又작쟉다這個

乜人己人이믐슬개시弼馬溫又運拙正行處可〻的撞見摩魔

有危故到處每〻逢魔

三十三回

醃了下酒졀여안쥬ᄒᆞ조打了一個寒噤打作也寒戰口噤也口裡哼

哼的입에흥〻ᄒᆞ다輪流當值哩如輪直是也儆見面錢人情錢又첫번

뵈옵ᄂᆞᆫ례

三十四回

呆〻掙〻道目瞪口呆良久乃語這一頓直〻的打死了一頓一飯頃

直〻猶賫〻又ᄒᆞᆫ번ᄂᆡ쥭염즉ᄒᆞᆫ다罷了마라羞那個去무어시부그러워扭〻

揘〻堅執任시릐기며唔을遭瘟的揹辱樣셩명ᄒᆞ여죽을놈

三十五回

鄚〻廝〻吶聲不絕鈍芦呪ᄂᆞᆫ소리나ᄂᆞ喬〻ᄒᆞᆫ拐呀拐的白다리절녹

결녹거려發課哩發始也課卦也查一查查問也毛團毛虫屬

三十六回

解下斗蓬斗麂也鮮纜也又삿갓을벗고小鮮쓰증누ᄎ

三十七回

慌撑慌忙

三十八回

套上衣服以衣加身曰套矣입고多少燒埋錢紙錢

三十九回

絮〻叨〻數黃道黑真個像死了人的一般哭泣〻滔 이니러라져러라ᄒᆞ면서 ᄉᆞᄅᆞᆷ죽은것갓치우단말 孤拐臂打就送你箇皮簾一

撈箇罄盡 ᄒᆞᆫ가죽죠치몰보리라 다건져보ᄂᆡ리라

四十回

這慌脫節了 慌忙 迯脫

四十一回

搥破臭子淌出些血來搽紅了臉 丑을쳐셔여피니 여샘에별거게

四十二回

掤開窟籠 刺出 穴 往海心裡撲的一攢 翻身入水又바 다가온디너지

다 那有一件值錢的東西 一言不直一錢 天着着你哩 天佑汝又

너를쳔히엿드니 挽起三個窩角揪兒 言結做箇三角以音

四十三回

些你養不大與你戴個鎖圈鐲頭哩 너를잘기르지못ᄒᆞᆯ가ᄒᆞ야목

쇠ᄊᆞᆯ쇠를씌오다 又 鎖圈輪珠鐲頭金勝 等彀多時了 等候多時 暖壽 獻壽杯

即虛丢了個架子 校戰失手勢又 거즛ᄡᅡ호ᄂᆞᆫ톄

四十四回

可有星〻緣法 조고만연분잇다 把他般般陣 방진쳐쳐를막아셔 襯

錢無數莫要小家子相 多錢莫以家子待之 心中忐忑 言不正 又마음

이벋덕벋덕ᄒᆞ다

四十五囬

麄似呂梁洪倒了板来沙沙的淌了一砂盆 너랖콕 픈나리

이는드시 ᄒᆞᆫ즈박이요 오ᄉᆞᆷ누다 滔出一鍾呷下口去只情抹唇咂嘴 ᄒᆞᆫ 줌을 쥐여 먹고 입슈알을 빤고 부리를 비믈고

四十六回

你工猜是破爛流丟一口鍾 一口廣幷 之鍾子

四十七回

㲉了 삣ᄇᆡ 憑你打罷 任你 打我 你可佈起罡来 排布紫微太 乙天罡法来

四十八回

是那諸兒来了 去番来人今番来 그거시 오ᄂᆞᆫ고나 險些兒 幾乎陷於 死地又ᄒᆡ

마트뎐

四十九回

你丟虛頭 言供調作虛頭 又네헷말ᄒᆞ다 打開花 言打臂肉而流血也

五十回

一個哈把狗兒 短尾狗 又발〻리 搵了一鉢盂 擎一鉢盂茶飮也 斯文〻 有威儀貞士曰斯文 又친〻이 것다

五十一回

雷撟 벼락마치 吻喇的一聲 鳥飛振羽聲 훌젹소리 寬懷暢飮 마음노코 먹다

五十二回

你這愰如何 이번은엇더ᄒᆞᆫ요 黃皮蚖慄 누른가죡에써죡 乾膊 팔月죡
又叫臂迦持 佛教 放刀 放氣

五十三回

擺渡的 渡水 骨冗冗 坐在草墩上績床 骨冗也冗冗多事也言坐在草
席上績床 紡枲 腆着肚子 食量寬也又 비를부되고 把牙一蹉 니를히니 眼中
噤淚 눈믈을머금고 罷了罷 已矣〻〻 마라〻〻 莫扭〻〻 비트지마라 既
知催陣疼不要扭動只恐擠破醬包耳 催陣始產擠 推也이믜ᄌᆞ
회는알프믈알면비트러 요동ᄒᆞ여치믈나게ᄯᆞᆯ나 哼着道 訥言貌 掛搭僧 荷擔僧也
비는 츙 花紅酒禮 即今東床禮之類也又네반 努目道 눈부릅ᄯᅳ고 니르되 把
那風月事 風月有若風流又 女色부지이믄 幾時占房的房子 何時揀定 又언

졔셰방셔 더나노 月子的人 行經婦人又 아희빈ᄉᆞᆷ

五十四回

轉灣抹角 모롱이도 라드려 常言道粗柳簸箕細柳頭 言各 有所

用莫要擔閣工夫 猶言抛置又실업시 수고드리지말라

五十五回

葷的是人肉餡饝饝素的是鄧沙餡饝饝 餡소立葷 具也肉餡

饝餅之屬 素山僧放ㄷㄷ 마라마라마라 浪ㄷㄷ 허령

五十六回

禿廝 僧曰禿驢故曰禿 廝又머리빈놈

五十七回

鍋巴冷飯巴眉也失밋히찬누룬밥

五十八回

抓〻摳〻믜트드며억휘며

五十九回

香茶一壺沙〻的滿斟一碗冲趂茶沫滷〻沙〻細細末屑也滷〻沸也

六十回

夾來夾盡也又부러오마扠沒好於亂躧金蓮金蓮脚步躧亂緍既日亂躧則無好夙來沒無也又잘것지못ᄒᆞ고신발을어즈러이ᄒᆞᆫ다

六十一回

叨餂得来了 叨饜也餂舐也非字今事 又法을약간아ᄂᆞᆫ지라 我把甬個結

心廣的 人之黃在心半之黃 在肝실병든것이라 不知好歹的植物變作

一隻香獐 아모상모로ᄂᆞᆫ탈박은것 변ᄒᆞ야ᄒᆞᆫ척형노로되여 也〻些〻 마〻 샤〻

六十二回

在那里猜拳吃酒哩 게셔먹국ᄒᆞ 며술먹다

六十三回

麈蜜 명子

六十四回

棠手来 나득비ᄂᆞᆫ손 씨을내다

六十五回

搭包 掛包搭也

六十六回

不来點卯 點考也卯酉仕之卯也又타졈맛지아니ᄒᆞ다 今番掙拄不得了 央脫

不得免又俗적이지못ᄒᆞ다 見有仙田打箇滾 側臥轉身又외맛헤구으다 僂

牙佅嘴 니을씨물고북우리놀비죽이다

六十七回

縱具打箇唿哨 몸을노아여여소릐지르다 侮着鼻子 코놀쓰쥐고

六十八回

不曾着見撑智 撑智小指흠것싀츳 把嘴一搁 奧之呷水狀又북리물ᄒᆞᆫ번들

지고 相貌刁鑽 今之僬僥是也形容古怪也

六十九回

誠為起死人了 진실노죽은사름니러나게ᄒᆞ리라 掙不得脫手 款脫未能

脫 這般口厭 말이만타 鮮粽飲酒 粽乃黍稷為糕也 衆官一躲箇

戩淨 官負이다숨다

七十回

巴山轉嶺 山을지여넘고嶺을둘너넘다 驀了幾驀 펄쩍〻〻여러번넘되단말

只苦了要來的宮女項缸 곤리로되신ᄒᆞᆫ려ᄒᆞᆫ다기

七十一回

真是猫咬尿胞空喜歡叙了一會 진실노괴가오좀통먹은듯헛깃부미라

七十二回

剮了他的衣服 저의의복 을츠오다 這箇匾毛畜生猫嚼頭的

逆人 이넘젹호털도흔즘싱아괴 가목셰목려먹을몹슬것

七十三回

滑把蘸 불젹〻 즛노라 只在那褪襠裡亂鑽 그져ᄉ타군 이ᄉ이에들

낙날낙 ᄒ다 戳子 솔져 鍋巴斗大 말마리 크다 忽䟫的响一聲 훌젹 ᄒ소

뒤 晦氣 쌕 丈校開才閃摁了一乞 나을버티이고 ᄒ환을넛다

七十四回

貶鮮趕身 조ᄎ셔나가 게ᄒ리라

七十五回

一根大扛了開路神 ᄒ큰들 장승

七十六回

今日還個和尚明日就是個大恭也 오날은즁이나니일은똥이된나

美虛頭揚鬼 헛되게속이다

只調過柄兒來打罷 걱구로잘는지바치다

今日不把紅紗 紅ㅅ슨을범치샤니라

七十七回

悶氣蒸 덥고셔이느냐열고셔이느냐又悶其蒸薰之氣出其鬱蒸之氣

冒冒失失 우락부락

七十八回

偎風雨睡 바람을향ᄒᆞ여조다

麻麻糊糊的睜開眼 멀거게눈을범뜨고

打箇吻哨 휫사소리치다又因忽不見

湯口胡柴 말을다엇씁다

七十九回

我把你這個哄漢子的賊情 내가너희ᄉ나희속이ᄂ속을

八十回

乃是西方喇嘛僧 이ᄂ西方오승이라 나嘛喇去来 마라즁이ᄂ오다

不當人子 ᄉ람속이지말라 又人子야나란말 切莫說脫空的話 헛된말

八十一回

觧手 똥누다 又 放手段

八十二回

開了格子 ᄉ니창ᄌ열고 又실감기라

八十三回

腌臢 더러온것 又不成人 嚌〻嘈〻挨〻簇〻 덤벙ᄂᄂᄒ며 부비ᄃ니다

嘻ㄷ嗄ㄷ 笑話희희하ㄷ 不當小可 죄곤거시아니라

八十四回

一子人家 ᄒᆞᆫ즐인가又ᄒᆞᆫ들은겻섯는구비리

八十五回

可憐就打得把了骨牌名都斷么絕六 가히어엿부다즛두ㄷ려 단절ᄒᆞ다又骨牌名일홈ᄒᆞ고 드믈ᄯᅡ나이현식견업스미라 還虧我有些識見 도로혀너가소견잇스믈 힘입어 又連上句解如上

八十六回

我有個分辦梅花詐 너가각ㄷ너는계교잇다 又美人騙局手 我把你這彩毛團 너너희무리털도친거슬 却是個販古董的貨識貨 任이ᄇᆞᆸ물

파드니라블 화을아노라 教唶淨頭皮滑搭〻的 스님의머리를 면거게쓰셔又

머리색근살 거믈이판〻 拿些人肉晒哩 人肉말 니소다 醃〻 져려 漸醉 貟又 等

我與他個獲添燈 합숙층두줄기를기又 내져늘뉘혼야쌍등켜 一頓 혼지 휘又

혼 서 稀爛 녹단 쌀

八十七回

把長嘴搁一搁 긴부리다뒤 츙구리다

八十八回

行句多時 령흔기를 소리흐다 倒換關文 관不 번쳡 途中有甚躭閣

길에부숨며 불미잇눈나 一藏之數 五千四十八卷佛經 中一藏之數云爾 搭廠支

鑪 쌋仺리집이꼴플부둑늘안치 다又부되시내화로되이미라

八十九回

唧揑訣咒念其言 開個花帳兒벌잔을버려 八口猪七控羊돗여덟양일곱

九十回

蓊撞夥목구든목리又어둑훈다 這幾個来이때려털도친거시오다

九十一回

受用누리아

九十二回

消停졍단훈다又止齋ㄴ 動支罰鍰無礙錢糧벌젼을지탕훈고젼량걸니지

九十三回

呆々鄧々 어린드시 瞪氣進門 잇곳다 又屁星囍门

九十四回

吃了飯兒不 밥먹어는냐 挺屍肚裡沒板脂哩 길에버드러죽는거 손비에기큰가름섭다

九十五回

免我懸掛 네싱각게뿔나 拉閑散悶耍子巳 소일혼게놀나

九十六回

媽々奶々 마々야媽女官 奶 母也互用尊稱 今日可々的 오날이야겨요庭巴

九十七回

套上腦箍 머리에테씨오다

九十八回

又着顊子 ᄯᅩ목쟝이에씌오다

九十九回

自来不吃烟火食也道勾了 본ᄂᆡ연화식아니ᄒᆞ여도당ᄒᆞ리라

一百回

鬆鬆纂兒 긴ᄌᆞ발늣초ᄂᆞᆫ진언이라